

주가 +20.07 1,451.22 (코스피지수)	환율 +1.40 946.50원 (원/달러)	금리 -0.03 4.87%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93.22 (+4.01)	다우(25일) 11,283.25 (-53.07)	나스닥(25일) 2,330.30 (-3.08)
닛케이 17,055.93 (+85.64)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5.17엔 (+0.31)	유로-달러 환율 1.2423달러 (+0.32)
3년만기 회사채 5.14% (-0.03)	클레리 3.97% (보합)	

금호생명, 광주콜센터 60석 추가 개소

(주)금호생명은 다음달 초 60석 규모의 콜센터 광주 TM(텔레마케터) 지점을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생명빌딩 13층에 추가 개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TM지점은 전화를 걸어 상품판매 등 고객 상담을 하는 '아웃바운드' 성격으로 고객보장 분석서비스와 개인별 보장설계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한다.

금호생명을 이을 위해 슈퍼바이저 및 텔레마케터 60여명을 채용키로 하고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금호생명 13층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채용대상은 만 25세~45세의 고졸이상 여성으로 직장생활 2년 이상자를 우대한다. 채용관련 문의는 금호생명 전화(062-350-3762)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금호생명은 지난 2004년 8월 광주시 양동 금호생명빌딩에 70석 규모의 콜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식품안전관리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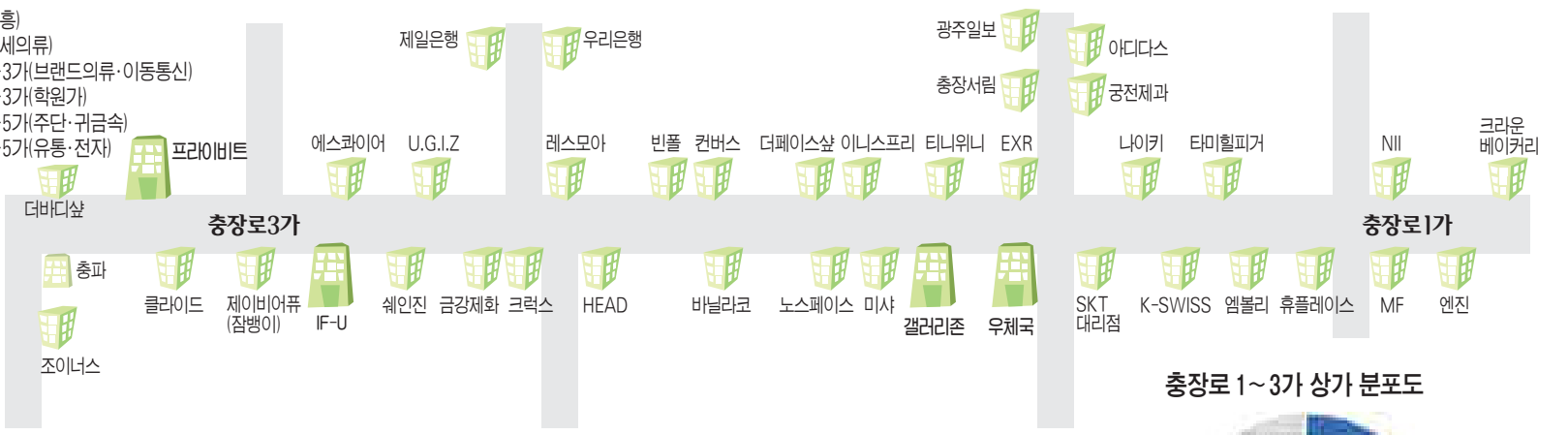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25일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농협판매장 식품안전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식품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아래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리제도의 개정내용과 식별방법, 관리요령, 식품위생관련 위반사례 및 관리방법과 예방책에 대해 현장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는 작년 말 '식품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농식품안전관리준칙'을 제정하는 등 농식품 사고예방과 농업의 신뢰도 보호를 위해 보다 강화된 업무지도와 자체규정을 정비하고 내부점검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고침=본보 26일자 경제면 '환율급락 직격탄' 기사중 '...대기업의 25.5%인 1천200만원의 보험료'는 '10만2천원의 보험료'로 수정합니다.



■광주 상권 분석 2) 총장·금남로

'호남상권 1번지'로 불리는 총장·금남로상권은 총장로와 금남로·황금동을 주축으로 크게는 대인동에 속하는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금남근린공원(옛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약 21만8천평의 면적에 총장로 1~3가, 총장로 4~5가, 황금동, 금남로 1~3가, 금남로 4~5가, 구시청 등 6개 세부 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도로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이들 세부 상권들은 총장로 1~3가의 경우 브랜드의류 및 이동통신 대리점, 금남로 1~3가는 학원가 등으로 특화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총장·금남로상권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을 절정으로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대규모 택지 지구 개발과 90년대 대형 백화점들의 진출, 지난해 전남도청 이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는 7월 농협까지 빠져나가면 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도심 공동화로 인한 상권침체는 곳곳에서 나타

10~20代 젊은층 손짓 패션·학원가로 '재부상'

도청이전으로 공동화...금남로프로젝트 추진 복합상권으로

나고 있다. 최대 핵심상권인 총장로 1~3가만 하더라도 1가입구에서 총장로출소까지 500여m 거리에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500여개의 가게가 영업중이었지만 올해 4월에는 329개로 줄었다. 총장로 1가와 3가 주변의 2층이상 건물중 빈 가게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가. 이로인해 특A급 지인 총장로 2가 우체국~헤드사이의 30평대 상가는 보증금 2~3억원에 권리금 2억원대, 월세 1천만원 수준으로 전성기때에 비해 20%가량 내린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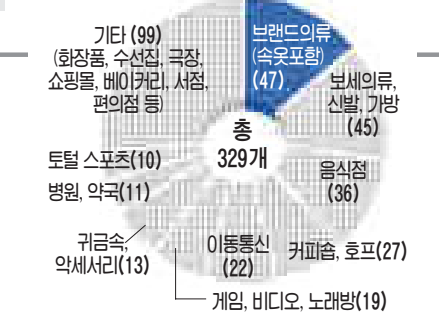
이같은 쇠퇴에도 불구하고 총장·금남로상권은 여전히 호남상권 1번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한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총장로 1~3가와 금남로 1~3가,

황금동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30대 이상이 주로 찾는 총장로 4~5가(주단·귀금속)와 금남로 4~5가(유통·전자)와는 달리 10~20대가 주 고객으로 평일에는 유동 인구의 80%, 주말에는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몰리면서 총장로 1~3가는 브랜드의류와 이동통신 판매점, 중저가 화장품 가게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특히 한 가게에서 의류와 신발은 물론 여러 브랜드를 판매하는 '멀티샵' 개념으로 변화하는 점이 특징이다.

황금동은 유행문화가 급속히 쇠퇴한 구시청사거리 인근에 있던 보세 의류 및 패션소품 가게들이 남아오면서 최근 1~2년사이 보세의류 전문거리로 젊은이들을 손짓하고 있다.

총장로 1~3가 상가 분포도



금남로 1~3가는 광주동부경찰서 주변에 집중된 고시 및 외국어학원으로 인해 학원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소형 전문서점과 분식집 등이 두터운 학원생들을 기반으로 영업중이다.

총장·금남로상권은 상권의 특화라는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젊은이들의 거리로 특화됐고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가파른 상승으로 재 부상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달 완공되는 금남근린공원을 비롯한 도심 활성화 사업인 '금남로 프로젝트'와 옛 전남도청 부지에 조성되는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총장로변영회 황진호회장(51)은 "사내상권이 전성기에 비해 쇠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 젊은층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복합상권으로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다음 상권분석은 상무지구입니다

현대·기아차 “협력사와 상생”

2010년까지 15조원 투입 직·간접 지원 부품대금 전액 현금지급·어음기일 단축

현대·기아차 그룹(회장 정몽구)은 25일 환율하락과 유가급등 등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환경으로 인해 부품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여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업체들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중소기업 협력업체 부품대금 전액 현금 지급 ▲2·3차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기일 단축을 위해 대기업 협력업체 어음 기일 120일에서 60일로 단축 ▲협력업

체 품질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및 교육 훈련·정보화 지원 확대 ▲지속적인 상생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팀 신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의 인력 및 품질·기술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당초 예정된 13조원 수준의 직·간접 지원금액을 2조원 늘려 2010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중 2조 6천300억원은 신차 금형비 등 협력업체의 개발투자비에 집중 투입된

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번 방안을 통해 ▲협력업체 재무구조 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 ▲협력업체의 근본적인 경영체질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월부터 지급될 중소 협력업체 부품대금 현금 5조4천여 외에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는 잔여금액 3조3천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차 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대기업 협력업체에 지급할 현금 9조5천억원 외에 어음지급 예정금액 5조1천억원의 지급기일을 120일에서 60일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신차 뉴카렌스 성공에 최선 다할 것”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담회

김준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지부장은 26일 "뉴카렌스의 성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날 노조 사무실에서 기아차 광주공장의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차 뉴카렌스 생산라인이 한때 가동차질로 지역민들께 걱정을 끼친데 대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뉴카렌스 생산라인 인원 배치를 둘러싼 노·사간 마찰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측의 노조간부에 대

한 고소사건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밖에 신규직원 채용비리 발생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28일 사무실내에서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결식아동돕기 사랑의 호프데이'를 갖고, 이익금 전액을 결식아동돕기에 전액 기증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뉴카렌스 생산대수를 올해 8만대(내수 2만7천대, 수출 5만3천대)에 이어 내년에는 15만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 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